

시험형 인간으로 살아가기 :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아비투스*가 추동하는 삶*

최선주(崔善珠)**
한승희(韓崇熙)***
이병훈(李秉訓)****
이정희(李正姬)****
장성연(張誠然)****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던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친 입시경쟁체제 안에서의 학습을 통해 형성한 아비투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 아비투스가 중등학교 이후 인생의 진로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서열체계의 정점에 있는 천하대 졸업생 중에서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하고 이후 경력 전환을 경험한 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입시경쟁체제에서 이들이 형성한 아비투스는 공부와 자신의 철저한 분리, 시험을 통한 권력 추구, 전략적 사춘기 회피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시험형 인간'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는 대학 입시가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천하대라는 명성과 결합하여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들은 대학서열체계의 정점에 있는 천하대에 입학함으로써 중등학교 시기에 일등을 하면서 누린 권력을 유지하고, 시험을 통한 일등의 권력 향유 방식이 통하지 않는 직장에서 곧 회의를 느끼고 대학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파고드는 공부와 자신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학문을 계속 분리해나갔다. 또한, 이들은 천하대생이라는 정체성에 기대고, 이에 걸맞는 '삶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춘기적 질문을 계속해서 회피해나갔다. 이 연구는 중등교육단계에서 형성된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가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며 시험을 통해 보다 안정적 지위를 보상받는 생애 경로를 계속해서 추동하는 점과 이 아비투스의 지속이 시험을 통한 선발과 보상이라는 우리사회 선발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입시경쟁체제, 아비투스, 시험형 인간, 진로 결정, 최상위권 학생

* 이 연구는 2011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의 연구소 지원금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평생교육연구센터 소장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우리사회 교육의 중요한 문제는 치열한 입시경쟁이다. 한국 교육은 학력·학벌 획득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과 점수따기 위주의 학습으로 특징지어지는 입시경쟁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이영호, 2002). 이 체제를 벗어나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상상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장기간에 걸친 입시경쟁을 치르느라, 10대들은 청소년기를 청소년이 아닌 오직 학생으로만 살아갈 것을 강요받아 왔다. 입시경쟁에서 뒤쳐져 있지만, 여전히 이 체제의 학생으로 살아야 하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받는 고통은 매우 크다. 여러 선행 연구들은 입시경쟁체제가 경쟁에서 승리한 극소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실패자로 만들고,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상실로 고통 받게 한다고 비판하였다(이혜영, 1995; 봉미미 외, 2008; 오현석 외, 2007; 황매향 외, 2009). 이러한 입시경쟁체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교육적 해결책과 사회 정책이 제시되어 왔다(이두휴, 고희일, 2003; 유현옥, 2003; 김상봉, 2004)

입시경쟁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일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입시경쟁체제에 대해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입시경쟁체제에서 학생들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입시경쟁체제가 가지고 있는 체제의 논리가 무엇이며 이 체제 안에서 가장 성공한 학습자에게 체화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들여다봄으로써, 입시경쟁체제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입시경쟁체제와 관련된 보다 통찰력 있는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입시경쟁체제에서의 체화의 성격에 대해 추론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영호(2002)는 입시에 몰두하는 학생들을 ‘입시집착형’이라 명명하고, 이들은 학교에 의존하건 사교육에 의존하건 간에 입시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철저하게 배분하고 관리하는 독특한 학습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열 외(1997)와 오정란(2008)은 학교들이 석차 공개를 통해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은 공개된 석차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서열화된 인식을 가지며 위계화된 진로 경로를 정당화하는 마음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다. 9시간 공부하고 1시간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시간 공부하고 그것으로 9시간 시험문제풀이 하는 셈”(김성열 외, 1997:16)인 입시 위주 학교에서, 학생들은 문제풀이의 달인이 되어간다. 김신일(2010)은 5지 1택 방식의 객관식 시험은 단순히 시험결과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일치시키고 5가지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비주체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단서를 기반으로 입시경쟁체제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던 사람들, 즉 입시경쟁체제가 갖는 논리를 내면화한 사람들의 습관을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아비투스란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행동과 인지, 판단의 구조화된 성향체계이자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체화된 정신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관념 혹은 의식의 차원을 넘어 무의식적인 습성이나 성향의 상태로 몸에 밴 것을 의미한다(Bourdieu and Wacquant, 1992). 아비투스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장(field)의 내재적 구조를 체화한 육체이고, 이 세계에서의 지각과 행동을 구조화한 육체를 말한다(Bourdieu, 2001).

Bourdieu(2001)는 이러한 아비투스가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성 혹은 항구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아비투스의 지속성에 주목하여 Bourdieu(2001)는 유산계급에서 태어난 자녀의 학구적 아비투스가 이후에 어떤 삶을 추동하는가에 주목하였고, 김천기, 김현수, 김혜영(2008)은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실용적 아비투스가 추동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관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입시경쟁체제에서 최상위권을 오랫동안 차지했던 학생들이 형성한 아비투스는 무엇이고, 이 아비투스가 추동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이 연구의 주요 관심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입시경쟁체제의 최상위권이라는 위치에서 형성된 아비투스의 성격은 무엇인가? 둘째, 이 아비투스는 대학 생활, 직장 생활, 경력 전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위해 입시경쟁체제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천하대 졸업생 7명을 연구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입시경쟁체제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면서 형성된 아비투스의 실체와 이 아비투스가 지속적으로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입시경쟁체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청소년기 학업우수자들의 진로 결정에 대한 새로운 설명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1. 입시경쟁체제와 아비투스

Bourdieu(1995)는 서구의 자본주의 문화가 알제리에 이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사람들은 왜 자본주의 제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제시하였다. Bourdieu는 인간의 행동은 엄격한 합리성과 계산을 근거로 행해지기보다는

일정한 기억과 습관, 사회적 전통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홍성민, 2004). 그에 따르면 아비투스란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행동과 인지, 판단의 구조화된 성향체계이자 과거로부터 지속된 체화된 정신구조로, 관념 혹은 의식의 차원을 넘어 무의식적인 습성이나 성향의 상태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Bourdieu and Wacquant, 1992). 이 아비투스는 단순히 개인이 만들어낸 성향이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장(field)의 특성과 사회적 공간에서의 위치에 따라 만들어진다. Bourdieu(2001)는 아비투스를 장(field)의 내재적 구조를 체화한 육체이고, 이 세계에서의 지각과 행동을 구조화한 육체라고 규정하였다.

Bourdieu(2001)는 계급에 따라 학문과 지식을 대하는 고유한 성향이 존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엘리트 계급은 순수 사유를 즐기는 학구적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출생과 결부된 이점들 가운데 가장 덜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초연하고 거리를 두는 성향이 다. 이 성향은 무엇보다도 어빙 고프먼이 '역할에 대한 거리'라 일컬어 유명해진 것으로 긴요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해방된 첫 번째 경험에서 획득된다. 이런 성향이 그것에 관련된 타고난 문화적 자본과 더불어 본질적인 부분으로 기여하는 것은 학교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케 하고, 특히 가장 명확한 학구적 훈련 - 이 학구적 훈련은 질 포코니에가 말하고 있는 서로 다른 '정신적 공간들'에 동시에 혹은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 에서 성공을 용이케 한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학구적 세계들 속으로의 궁극적인 진입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Bourdieu, 2001:35).

유년시절 가정에서 형성된 학구적 아비투스는 이후 학구적 훈련에서의 성공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해 학구적 세계들 속으로의 궁극적인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어릴 적 계급적 기반에 의해 형성된 학구적 아비투스가 이후 학구적 세계로의 진입이라는 경로를 구성해나간다는 것이다. 반면, 김천기, 김현수, 김혜영(2008)은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습과 지식에 대해 '실용적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실용적 아비투스가 추동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탐구하였다. "△△전자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성적이면 충분해요. 공부해서 뭐하겠어요. 선배들이 그러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대요"(김천기, 김현숙, 김혜영, 2008:20)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연구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이 일정 학력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여 노동현장으로 나아가는 진로 결정과 그들에게 체화된 실용적 아비투스 간의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ourdieu의 학구적 아비투스 논의는 학습에 대한 독특한 성향이 사회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학습에 대한 고유한 성향을 지나치게 계급환원적, 계급결정론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계급별로 차별화된 문화가 명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백병부, 2008), 학습에 대한 독특한 성향의 경우 입시경쟁체제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김천기, 김현수, 김혜영

(2008)의 경우 상업계 학생들의 사례를 연구하여, 입시경쟁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형성되는 아비투스가 무엇이고 이 아비투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시경쟁체제에서 오랫동안 최상위권 위치를 점유하면서 형성된 아비투스의 독특성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비투스는 기본적으로 지속성 내지 항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된다(Bourdieu, 1997). ‘아비투스가 추동하는 삶’을 탐구하는 것도 이러한 지속성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항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아비투스들을 혼련시키는 사회적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비투스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한결 같은지는 그것이 형성되고 단련되는 사회적 조건에 달려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행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망성은 역시 아비투스를 생산하는 사회적 조건들과 이 아비투스들을 혼련시키는 유기적이거나 비판적인 사회적 조건들에 달려있다.(Bourdieu, 2001)(김천기, 2007:4 재인용)

이 논의에 따르면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아비투스가 대학 생활과 대학 졸업 이후에도 얼마나 일관되게 지속되는가는 대학과 우리 사회의 조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즉,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특정 아비투스가 유리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이 아비투스가 체계적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중등학교 시기 학업우수자의 진로 결정

한 사람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변인과 진로 결정시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의 내외적 변인에 관한 것이다. 자기 내적 변인에는 지능, 학업능력, 인지양식, 자아개념, 자기존중감, 통제 소재 등이 있고, 자기 외적 변인은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관계 등이 있다. 김민배와 문승태(2004)는 대학생들의 내적 요인인 자아정체감과 외적 요인인 부모 지지, 친구 지지, 학교환경 지지와 진로 결정 수준에 관해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정체감과 부모·친구·환경의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았고, 특히 자아정체감과 학교환경이 진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대학생들이 진로 결정시 고려하는 요인에 관한 것이다. 대졸자들이 취업 및 이직활동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급여, 고용안정성, 근무조건, 개인의 발전 가능성 등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10). 그런데 이들 고려 요인들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제시되

어,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임언, 노일경, 정혜령(2010)의 연구는 자신의 학력과 능력이 현재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비해 과잉인 경우 직장이동을 통해 직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중등학교 시기 학업우수자이고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과잉교육', '과잉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에 민감하여, 이것이 경력 전환 여부와 전환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임은미(2011)는 대학생들이 진로 결정 과정에서 입학에 대한 자기평가, 학과 적응, 희망직업 구체화,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공고화라는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주요 개입 요인은 부모와의 진로선택 갈등 여부, 소속 전공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 지속적인 환경적 지지였다. 한편, 권기남, 임수원, 이정래(2008)의 연구는 대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유보하다가, 4학년이 되어 급하게 진로를 결정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 청소년기 학업우수 학생들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있다. 최근 진로결정과정에서 학업우수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과 다른 경험을 할 것으로 보고, 학업우수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경험 및 결정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남경민 외, 2010; 하정, 2007; 손진희, 2010a; 손진희, 2010b). 남경민(2010)과 하정(2007)에 따르면, 학업이 우수한 고등학교 남녀학생들은 자신들의 적성, 흥미, 능력, 자아실현 추구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한다. 고등학교 시기 학업우수자였던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개인내적인 특성(적성, 성격, 흥미, 가치관), 자신에 대한 자신감,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정, 높은 성취와 자아실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진희, 2010a; 손진희, 2010b). 즉, 청소년기 학업우수 학생들은 자신의 내적인 특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려는 욕구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학업우수자의 진로 결정과 관련된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학생이 아닌 청소년기 학업우수자들이라는 대상 특수적인 고유성에 주목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우수자들이라는 집단적인 특성과 이들의 진로 결정시 고려 요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에서 드러난 진로 결정 고려 요인들은 대상 특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학업우수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진로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요 결정 고려 요인에서는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학업우수 학생들이 자신의 높은 학업성취도와 진로 선택의 관계를 양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높은 학업성취로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지만, 학업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이 가야 하는 계열과 학교가 정해져 있어 진로 선택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남경민 외, 2010). 청소년기 학업우수자였던 여자대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진로 결정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손진희, 2010a). 즉, 청소년기 학업우수자들은 지금까지 높은

학업성취로 인한 자신감과 자신의 적성을 살려 능동적으로 진로 선택을 고려하면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복잡한 진로 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민경(2008)의 연구는 “일류대생이라는 것도 취업에서 유리한 조건이라는 생각 대신 학교위상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명문대생의 복잡한 진로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대학 및 대학 졸업생의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상 특수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대학생을 동일집단으로 보고 이들의 진로 결정 요인에 대한 탐색을 주로 해왔다. 청소년기 학업우수자들의 진로 결정 경험에 주목한 연구들이 최근 나오고 있지만, 입시경쟁체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명문대 졸업생들의 실제 취업 및 경력 전환 과정을 조명하는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업우수자들의 경력전환과정을 포함하는 진로 선택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입시경쟁체제에서 오랫동안 최상위권의 위치에 있던 학생들에게 체화된 아비투스 가 무엇인가 밝히고, 이 아비투스가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취업 및 경력전환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전형성 확보를 위해 중등교육시기 시험공부에 몰입하고, 시험을 통한 성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천하대 졸업생으로 한정하였다. 천하대 졸업생 중에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대상을 찾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세웠다. 본 연구가 입시경쟁체제에 익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나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 등 특수한 중등교육경험을 가진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둘째,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아비투스가 취업, 직장생활, 경력전환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연구이므로, 대학 졸업 후 국내의 대학원에 바로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한 졸업생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단과대학마다 전공공부와 진로탐색과정의 특이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다양한 단과대학 졸업생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넷째, 중등교육 및 대학에서의 경험이 세대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입학시점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연구자들 주위의 천하대 졸업생을 접촉하고, 지인들에게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대상자 추천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에게 ‘어느 고등학교 다니셨나요?’, ‘언제 취업하셨나요?’, ‘현재 어떤 일을 하시나요?’ 등과 같은 예비 질문을 통해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면담은 처음부터 연구제보자를 몇 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작되었다. 처음에 인문대와 간호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성격이 다른 단과대학 졸업생들을 찾아 면담을 진행하며 면담내용을 계속 비교해나갔다. 8번째 연구제보자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내용을 코딩할 때 기존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범주가 생성되지 않았다. 이를 잠정적으로 이론적 포화도에 이른 것으로 보았고 연구기간의 제한이 있어, 추가적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연구 초기에는 대학 졸업 직후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세계에 진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학 재학시절에 사법고시를 보고 대학 졸업 후에는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을 연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초점을 경력전환 과정으로 좁히면서, 해당 제보자는 별도의 경력전환과정이 없어 분석과정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최종 참여한 제보자는 7명이다. 연구 제보자들이 졸업한 단과대학은 간호대학, 인문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 약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등으로 다양하였다. 제보자들의 대학입학 시점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연구제보자들의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제보자 정보

번호	이름(가명)	성별	단과대학	비고
1	송지은	여	간호대학	간호사로 근무하다 현재 회사 생활
2	유슬기	여	인문대학	기업에서 근무하다 현재 대학원 재학
3	이지혜	여	경영대학	기업에서 근무하다 현재 대학원 재학
4	정혜리	여	법과대학	외국계 기업 근무, 대학원 휴학
5	최준호	남	공과대학	기업에서 근무하다 현재 대학원 재학
6	정지윤	여	약학대학	약사로 근무하다 현재 병원 수련의
7	백승민	여	사범대학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현재 대학원 재학

2.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주로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면담 내용은 중고등학교 시기의 공부법 및 진로계획, 대학전공 선택과정, 대학 재학 시 전공 공부법, 진로 탐색과정, 직장생활의 의미, 경력 전환의 과정 등이다. 면담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취직 하고 나니 어떠셨어요?’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고, 연구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대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시 확인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경험을 이야기한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하는 방식으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면담 후, 빠른 시간 내에 전사하여 면담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 유도성 질문이 있었는지, 추가 질문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대로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 제보자 면담에 반영하였다.

1차 면담 자료를 잠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추가 면담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1차 면담에서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특별한 사춘기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정말 사춘기가 아예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춘기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유슬기, 정혜리, 이지혜는 ‘나는 공부는 아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있어 공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차 면담은 제보자들의 시간의 한계로 인해, 연구 대상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2차 면담을 허락한 백승민, 정혜리, 유슬기, 이지혜 4명과 추가 면담을 하였다. 백승민과는 한 시간 정도 2차 면담을 실시하고, 정혜리, 유슬기, 이지혜의 경우는 이메일을 통해 추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2차 면담을 통해 사춘기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회피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이들이 ‘파고 들어가는 공부’ 자체를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료 분석은 지속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Glaser, Strauss, 1967)을 사용하였다. 먼저 개방 코딩을 하였는데, 제보자들이 사용한 단어들에 코드로 많이 이용되었다. 다음으로 개방 코딩에서 나온 코드들을 범주로 발전시켰다. 한 코드와 다른 코드와의 관계, 범주와 범주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였다. 코딩의 결과를 반복해서 읽으며 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 코딩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핵심 범주가 무엇인가에 대한 몇 번의 논의를 거쳐, 연구자들은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를 핵심 범주로 보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시험형 아비투스를 중심축으로 다시 코딩하고 범주화를 하였다. 시험형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주요 범주들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일부 제보자에게만 치중되어 설명력이 떨어지는 범주는 배제하고, 범주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적으로 3가지 주요 범주를 확정하였다.

IV.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

본 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인 입시경쟁체제에서 최상위권이라는 위치에서 형성된 아비투스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입시경쟁체제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던 제보자들에게 형성된 아비투스는 ‘시험형 인간’으로 드러났다. 시험형 인간이라는 용어는 제보자 중의 한 명이 내용에 흥미와 관심이 없으면서도 잘 암기하여 시험은 잘 보는 자신을 지칭한 말이었다. 이들이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한 주요한 성향은 공부와 자신을 분리하고, 1등의 권력을 추구하고 누리며, 사춘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었다. 이는 시험을 통해 혹은 시험을 위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향들을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로 이름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공부’와 ‘나’와의 격리 : “그냥 외우는 거야”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는 우선 이들의 공부방법과 밀착되어 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제보자들의 주요 공부방법은 효율적 암기였다.

(조금 전에 시험형 인간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실험이고 아무 것도 관심 없고, 국사도 우리나라 역사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뭐 그냥 되게 잘 외우고 시험 보면 당연히 그런 건 잘 할 수 있지. 근데 뭐 그런 거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남들보다 별로 길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그걸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들이 물어보면 꽤어 맞춰서 말도 잘해. 근데 흥미는 없는 거지. 흥미도 없고 시험기간 끝나고 나면 다 까먹고. 누가 물어보면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꼭 알아야 돼? 그런 거 있잖아. [...] 이거에 관심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도 아니고. (이지혜)

“그냥 외우는 거야. 뭐 그냥 되게 잘 외우고” 에서 드러나듯, 이지혜는 짧은 시간 안에 단순하게 외우고, 시험 잘 보고, 그리고는 잊어버렸다. 중고등학교 때 시험공부는 공부 내용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부에 흥미를 느껴 지식의 본질을 탐색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시험에 방해가 될 뿐이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객관적 교과서 지식’ 안에 끼어들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식을 외우고, 문제를 읽고 정답을 신속히 찾아내는 과정에 ‘나’를 끼워 넣을 틈이 없을 뿐더러 그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이들은 말한다. ‘내’가 없어야 더 잘 되는 공부였다. 이렇게 공부와 자신을 분리하는 작업은 일상에서 치밀하게 관리되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받아 적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필기 할 때는 최대한 내가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정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필기를 잘 해놓으면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기도 쉽고, 기억에도 잘 남으니까요. (유슬기)

이들은 교사의 설명을 최대한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교사의 설명에 집중하고, 최대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필기를 잘하고, 쉬는 시간에 수업 필기를 정리하였다.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서 필기, 쉬는 시간에는 필기 정리 및 암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그날 진도에 맞춘 문제풀이 등과 같은 방식으로 “시간은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시험을 위해 시간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나’에게 ‘진정한 나’는 한편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시험공부의 핵심은 문제풀이였다. 문제풀이가 “되게 기계적인 거”지만, 백승민은 왜 자신이 이런 기계적인 공부를 계속 반복해야하는지 반발하거나 특별한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풀이는 큰 성취감을 주었다.

막판에 문제만 풀고 오엑스만 보면 되고 단순해서 좋다. 그런 단순함은 그리워요. [...] 그거는 되게 기계적인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크게 의식한 것 같지는 않고요. [...] 열심히 하다 보면 손에 잡히지 않다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들어오잖아요. 그 느낌이 낯익이 없이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건 뭐가 잘 된 느낌이에요.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그냥 잘 되는 느낌. 부드럽게. (백승민)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문제가 술술 풀려나갔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답을 찾는 게임에서 계속 이기게 되었다. 출제자의 사고방식이 곧 나의 방식이었다. 이 게임의 룰에 익숙해졌고 성취감도 컸기에, 그 당시의 문제풀이 공부는 여전히 그리울 뿐이다.

정답은 이미 제보자의 사고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들이 할 일은 최대한 자신의 사고 구조가 답의 구조와 유사하게 닮아 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의 존재가 점차 희미하게 지워져갈 때, 이들은 오히려 공부에 몰입을 맞보았고 성취감을 느꼈다.

2. 1등은 권력이다 : “그래서 이게 권력을 쥔 것 같은”

내가 빠져버린 공부, 주체가 사멸한 공부는 적어도 논리적으로만 보면 호흡이 길 수가 없다. 생각의 주체가 지워진 자리에 시험을 위한 ‘객관적 지식의 아성’을 쌓는 일은 우선 그 자체만으로는 뭔가 성취해 가는 과정인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극도의 자기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성적 부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유지, 강화,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모종의 유인이나 매개적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제보자들은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공부를 못하면 어떤 대우를 받고, 1등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이들에게 1등의 경험은 강렬하였고, 그것은 주체가 지워진 빈 공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정혜리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다가, 어느 날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며, 정혜리는 마치 자신이 “권력을 쥔 것” 같았다. “권력을 쥔 것 같은” 기분, “인정받는 그 느낌”은 매우 매력적이어서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성적이 올라갔더니, 나를 이렇게 때리던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잘 해주고, 학생들도 약간 친구를 무시하다가 이제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고,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권력을 쥔 것 같은, 인정받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아, 이제 성적이 내려가고 싶지 않은, 이걸 어떻게든 유지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1학년 때 공부 못 할 때 기억들도 있고 하나... 초등학교 때도 계속 3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고, 중학교 와서는 이제 본격적인 그거니까, 중학교 때 도 계속 그런 식으로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정혜리)

권력은 잃을 때가 더 불안한 법이다. 시험 성적을 통해 얻은 권력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성적이 다시 떨어질 경우 주위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떻게든 계속 최상위권에 들어야 했고, 그러는 동안 교사, 친구들, 가족들로부터도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이들은 공부를 통해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몇 년의 시간을 보냈다.

약간 교육제도에 대한 비웃음도 있었구요, 내가 성적을 잘 내면은 내가 어떤, 이런 일들을 해도, 가령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도 용납이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 (공부 잘 하면) 만화책 보다가 걸려도 덜 혼난다던가, 그런 거 약간 비웃으면서 즐겼던 거 아닌가. (정지윤)

정지윤은 만화책을 보다 걸려도 공부를 잘 했기에 덜 혼이 났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지각하거나 복장 위반을 하여도 성적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등의 자잘한 경험을 통해, 시험성적이 곧 권력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정지윤은 성적에 따라 이런 차별대우를 하는 ‘교육제도’를 비웃었지만, 한편으로 이 차별대우를 즐겼다. 이들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들 사이에서도 공부를 잘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접을 받았다. 이들은 1등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런 기득권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자신은 공부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이고, 이런 자신이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런 권력을 누리는 자신의 존재감은 너무나 확실하였기에, 자신이 빠져버린 공부를 하는 일

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내가 공부를 좋아하느냐’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이들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남보다 뛰어난 성적을 내느냐’ 하는 상대적 우열이었다. 시험 성적을 통해 누리는 1등의 권력 효과는 내적, 외적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화려한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단단하고 견고한 갑옷은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아 탐색과 성찰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3. 전략적 사춘기 회피 : “일단은 대학 가서”

효율적인 암기와 정답 찾기에 ‘도가 트여’ 문제풀이에서 오는 성취감과 시험 결과에 따라 누리는 권력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해주었고, 일상은 입시 준비로 철저하게 관리되면서 이들은 안정감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 안정감을 깨는 요인을 잘 차단하는 것이다. 성적 관리에 있어서 10대 중후반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바로 사춘기이다. 체보자들은 사춘기를 전략적으로 피해나갔다. 사춘기는 흔히 반항의 시기라 불린다. 사춘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기존 질서들에 의문을 던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이 외부의 시선에서는 반항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춘기를 거치면서 확실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발달과업을 피해갔다. 이들에게 딱히 사춘기가 없었다.

성적을 최고로 여기는 학교와 사회의 풍토에서 성적이 매우 우수한 이들에게 “반항할 일”은 별로 없었다. 이지혜는 자신의 중등학교 시기에 대해 “치열한 모범생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반항한 적도 없고 반항할 일도 없었”다고 말하였다. 사춘기의 부재는 반항할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는 누구이고, 왜 공부해야 하는가’와 같은 불쑥불쑥 올라오는 질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정혜리는 고등학교 때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존재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였다.

중학교 때 이미 이런 뜻을 세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공부를 잘 해서 출세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이미 공부를 잘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할 거라는 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저의 학업 동기였습니다. 제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까지는 없었고, 조금은 성공과 인정에 대한 열망이 저를 공부하도록 이끈 것이었죠. (정혜리)

공부를 잘 해서 출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정혜리는 고등학교 때 ‘나는 누구이고, 왜 공부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그런 고민할 틈을 주지 않았다. 이런 고민은 불필요했고, 오히려 공부에 방해만 될 뿐이었다. 성적이 떨어지면 자신을 대하는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변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야말로 정혜리가 늘 직면해야 하는 존재적 고민이었다. 그에게 성적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성적이 많이 떨어지니까 불안해져서 나도 엄마 얘기에 동의를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공부, 성적 관리를 좀 시작을 했고 그랬지요. [...] 내가 이 질서 안에서 성적이 좀 잘 나와야 이런 저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거기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겠어 라는 생각을 이제 고 2초 중반쯤 하게 되고. 동아리도 그만두고, 성당도 안 다니고, 친구들과파도 다니지 않고 그냥 그 때는 그랬어요. (백승민)

사춘기는 잠깐 찾아오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백승민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에 집중하며 학업을 소홀히 하였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막상 성적이 떨어지자, 백승민도 불안해졌다. “이 질서 안에서” 성적이 갖는 의미는 중대했다. 그에게 이 질서를 거스를 용기는 없었다. 백승민은 다시 이 질서에 순응하기로 하고, 동아리활동, 종교 활동을 모두 접고 성적관리에 전념하여 다시 최상위권 자리를 회복하였다. 사춘기는 오히려 없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일단은 대학 가서 생각해도 되니까. 그리고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내가 어떤 진로라든가 목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단순하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좋지요. (백승민)

이들에게 사춘기는 그냥 넘어간 것이라기보다는 대학 이후로 ‘연기’되었다고 하는 편이 옳다. 대학 입학이라는 선명한 목표는 이들이 “고민 없이 공부나” 할 수 있었던 힘이었고, 이 축을 흔드는 근본적인 고민이나 자아에 대한 성찰은 대학 이후로 미루어졌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할 것이고, 어떤 직업이 자신과 잘 어울릴 것인가 하는 것도 “일단은 대학 가서 생각”할 일이었다. 이들은 입시 준비 때문에 바빠서 구체적인 진로 탐색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반항의 부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의 부재, 진로 탐색의 부재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사춘기를 회피하는 주요 방식이었다. 이 사춘기 회피 전략을 통해 이들은 공부에 집중하였고, 원하던 대학입학에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기적 진로 설계를 가로막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였다.

V. ‘시험형 인간’ 으로 살아가기

이번 장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가 이후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입시경쟁체제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관리해오면서 형성된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는 입시를 마치고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공부와 자신의 철저한 분리, 시험을 통한 권력 추구, 전략적 사춘기 회피라는 시험형 인간 아비투스는 대학과 직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재생산되어 제보자들의 진로 결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보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긴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는 이들의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이끌어 갔다.

1. 1등의 자리 : “나도 공부를 잘 했는데 사회에서는...”

입시경쟁체제에서 1등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컸고, 제보자들은 꽤 오랜 시간 이 특권을 누려왔다. 정혜리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미 1등이 무슨 의미인지 피부로 느끼고, 그 이후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고3까지 열심히 공부하였다. 제보자들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지만, 막상 수능시험을 끝내고 대학 입학 원서를 써야할 때까지 자신이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지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전공과 잘 맞는지, 나중에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 적이 거의 없었다. 이들은 부모님과 학교 교사의 조언을 따라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공에 원서를 넣었다.

송지은은 이전에 간호학과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간호대는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일단 천하대라는 것 때문에” 천하대 간호학과에 원서를 냈다. 천하대는 전공에 상관없이 입학하고 싶은 곳이었다. 이는 천하대가 대학서열에서 정점을 차지하고 있어, 천하대 입학은 입시에서의 승리와 자신의 우월함을 확실히 보여주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들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거기에서 제 인생의, 잘못된, 뭐 잘못되었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 성적이 있었는데, 음, 사실 그 친구가 법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법대 커트라인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대학을 가면, 같이 천하대를 가도 애 이름이 먼저 나올 거잖아요, 커트라인이 더 높으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동급임을, 동급 내지는 제가 더 우월함을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어요. (정혜리)

정혜리는 시험형 인간의 전형적인 전공 선택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지만, 외교학도가 아닌 법대를 선택하였다. 법대 공부와 자신이 잘 맞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대 커트라인이 더 높기 때문에 법대를 가야 했다. 경쟁자이던 친구와 비교해 동급 내

지 더 우월함을 증명하는 게 중요했다. 이들은 시험을 통한 서열화에 민감하였다. ‘천하대이기 때문에’, ‘법대이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했는데, 입학해서 이들은 곧 전공과 자신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보자들은 자신의 전공적성 불일치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정지윤의 경우, 자신이 “약대에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하며, 약대 수업도 잘 듣지 않았다. 그러나 전공과 자신의 불일치가 유발하는 갈등상황에서도 이들은 자기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이지혜는 펀드매니저나 컨설턴트를 하고자 경영대에 왔다. 그러나 대학 와서 보니 두 직업은 힘들고 직업 수명도 짧은 것을 알고 곧 포기하였다. 그가 가졌던 꿈은 피상적이었고, 대학 전공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그러나 그는 처음 경영학을 선택했던 이유와 직업 목표가 없어진 상태에서도 별로 불안해하지 않았다. 유슬기 역시 생각하지 못했던 전공과 불투명한 장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놀”았다. 대학서열체계에서 ‘1등’인 천하대에 왔는데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였다.

제가 열심히 놀았거든요. 되게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아서. 이렇게 뭘 해야겠다는 압박감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2학년 때 정도까지는 별로 그렇게 고민이나 이런 거 없이 되게 재밌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 사실 뭐 1,2학년 때는 놀고 재밌고 이래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유슬기)

간호학 공부가 자신과 잘 맞지 않았던 송지은은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사범대 편입을 고려하다가 곧 포기하였다. 주된 이유는 그럴 경우 천하대 사범대가 아닌 다른 학교의 사범대나 교육대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더라도 천하대라는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어설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기보다 천하대라는 학교 명성에 기대는 것이 그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보았다.

그냥 천하대 이름 안에 매여 있었던 같아요. 내가 그냥 천하대라는 틀을 벗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다른 길 하게 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사범대를 다시 도전하겠다 하면, 물론 천하대 사범대를 도전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편입준비를 하게 되면 천하대를 벗어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천하대 네임밸류(name value)를 벗어날 만큼, 이 천하대가 주는 틀을 벗어날 만큼 용기는 없었던 거 같아요. (송지은)

제보자들은 중·고등학교 입시의 보상으로 천하대라는 권력을 얻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을 안배하고 진로 탐색 범위를 제한하였다. 천하대라는 권력을 얻고 지키려고 애썼지만, 대학 재학시절 이들은 천하대생이라는 정체성을 특별히 잘 느끼지 못했다. 이는 천하대와 천하대 동료들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보니, 직장은 학교와 전혀 새로운 환경이었다. 이들은 먼저 천하대생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주변

인들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천하대생임을 새삼 깊이 느꼈다.

우선 제가 별거 안 해도 그냥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아~ 역시 천하대생. 이렇게 말을 하시거나. 진짜 별거 아닌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 되게 천하대생이 이런 것도 못 알아 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양가적인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그게 질투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절 두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유슬기)

제보자들은 “질투 같기도 하고 두려움 같기도 한” 직장동료들의 독특한 시선을 받았다. 이러한 시선은 새삼 자신이 “특별한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였다. 예컨대, 유슬기는 주변 동료들이 자신을 ‘신입사원 유슬기’가 아닌 ‘천하대생 유슬기’로 바라보는 시선을 부담스러워했다. 회사 안에는 학력에 민감한 상고출신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는 조직에서 “튀지 않고자” 더욱 노력하였다. 국내 제약회사에 취직한 송지운은 자신이 천하대 출신인 것이 원하지 않게 알려진 후, 묘한 시선과 함께 “왜 여기 있어요? 천하대 나왔으면 더 좋은 거 할 수 있지 않아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천하대 나와서 직장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천하대 출신이면 다 판·검사, 교수, 의사 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이들에게 천하대는 꼭 숨기고 싶은 학벌만은 아니었다.

일단, 직업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약사는 어느 학교를 나왔든. 그래서 정말 약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회의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정지운)

정지운은 굳이 천하대 출신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약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꼈고, 천하대 출신인 자신은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믿었다. 은행에서 자신이 천하대 출신임을 최대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유슬기 역시 일을 하면서 자신이 천하대 출신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좀 더 천하대생으로서 좀 더 나은 직업, 좀 더 나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되게 심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하거나 그런 뭔가 회사에서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걸 하려고 공부했나. 이걸 하려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냈다. 이게 대체 이게 뭐하는 걸까. (유슬기)

유슬기는 은행 창구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였다. 그 중에는 “참 이상한 사람”도 많았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이런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었기에 큰 충격을 느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회의를 들기도 하였다. 공부한 것에 비해 자신이 하는 일은 너무 단순한 업무이고, 대접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천하대생으로서 좀 더 나은 직업, 좀 나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해졌다. 공대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취직한 최준호는 자신이 사회에서 일개 소모품으로 취급받는 상황에 부당함을 느꼈다. 그 부당함의 근거는 “나도 공부 잘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였다. 그에게는 공부를 잘 한 자신은 “하나의 소모품적인 그런 개체로” 대우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 다시 말해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있었다.

엔지니어라는 게 사회적인 지위가 뭔가 낮은 이유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대우가 별로 그렇지 않은 거야. 하나의 소모품적인 그런 개체로 바라보는 게 난 되게 맘에 안 들더라구. 나도 공부 잘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사회에서는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최준호)

요컨대, 제보자들은 신입사원으로서 직장생활에 충분히 몰입하지 못했다. 조직의 표준화되고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며 일을 익혀야 하는 시기에, ‘공부를 잘했던’, ‘천하대생’이라는 정체성은 이들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이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우수함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용납하지 못했다. 이들은 결국 자신의 존재가 특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을 찾아 다시 진로를 탐색하였다. 입시경쟁체제에서 특권을 누렸던 이들은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직장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이후에도 과거의 특권을 쉽게 잊지 못한다. 이들은 그동안 누렸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일을 찾게 된다. 이들에게 있어 자신을 드러내기에 가장 익숙한 방법은 바로 시험을 통한 것이었다. 시험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교육시스템을 벗어난 이후에도 시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나 직장을 찾고 있었다.

2. 학문과 나와의 분리 : “나는 공부할 사람이 아니다”

제보자들은 중·고등학교 때 탁월한 암기 능력과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인해 소위 ‘공신(공부의 신)’으로 불렸다. 또한 천하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학문을 하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며, 교수들도 학생들이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학문 후속세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제보자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지우는 선택지가 학문세계로의 진입이었다. 다시 말해 자신은 공부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가장 먼저 하였다.

학부 때 진로 관련해서 대학원 생각을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곧바로 나는 계속 공부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원 연구라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고, 사회에서 일하는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연구보다는 일하는 게 나에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중고등학교 때 이 이론,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점은 뭔지 파고드는 공부를 하는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 대학 전공을 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유슬기)

“나는 계속 공부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은 이들이 학문 중심의 공부를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삶과 학문적 삶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공부해왔던 학습의 방식, 즉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가 학문세계로의 적극적인 진입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정해진 답을 암기하고 시험을 통해 이를 충실히 재현하는 방식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의문점은 뭔지 파고” 들어야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도록 요구하는 학문적 상황은 불확실성 그 자체로 인식되었다. 또한 ‘파고 들어가야 하는’ 연구라는 것은 ‘일 하는 것’보다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확실한 공부를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온 시험형 인간에게 학문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도, 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이지혜도 “난 공부는 아니야”라는 자기규정을 바탕으로 학자의 길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학문 중심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천하대에 입학해서도 학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서열화’가 대학 입학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최준호는 주변의 뛰어난 친구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였음을 깨달았다. 고등학교 때까지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그에게 자신보다 더욱 뛰어난 ‘고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커다란 ‘좌절’로 다가왔다. 학문이 사실상 상대평가와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의식은 이들로 하여금 그런 전공 공부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학문을 뛰어난 학생들이 향유하는 선별적 지위라고 느꼈던 것이다.

들어가서도 들어가면 난 정말 재미있을 줄 알았거든. 정말로 내가 원했던 공부였고 잘 할 거라 생각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제나 이제 강호에서 교수들이 하하. 어, 숨어있던 재야의 교수들까지도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은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나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더라 생각하게 됐지. 학교 다니면서. (최준호)

문제는 이런 결정이 자신이 정말로 학문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성찰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전공 공부를 할 때 자신이 학문을 탐구하는 데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 주관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신보다 잘 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학문의 길에서 밀려남을 스스로 느꼈다. 그럴수록 ‘천하대 학위’는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갔다. 그들은 천하대 학위를 얻기 위해 천하대를 명예

롭게 졸업해야 했고, 그 졸업장을 통해 취업해야 했다.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전공과목은 학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쳐야 하는 의무사항에 불과하였다.

전공필수는 어쩔 수 없이 들었고. 전공필수는 정말 학점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전공선택은 그 중에서 내가 좀 관심 있는 것, 국제경제법, 국제법, 세법, 그런 것. 그나마 나의 두뇌에 땡기는 걸 최대한 찾아서 들었어요. (정혜리)

제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천하대 학위’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이었다. 적당한 학점을 받는 데 꼭 학문적 역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전공의 깊은 세계에 몰입해 들어가는 대신, 이들은 대학에서도 여전히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필요한 만큼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학점을 관리하였다. 학점 관리를 위해서는 하기 싫은 과목도 어쩔 수 없이 듣고, 시간을 투자하여 학점을 얻었다. 대학 전공 공부와 ‘나’는 여전히 겹돌았다. 학문을 위한 몰입은 이들에게 낯선 세계였고, 자신이 그동안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대학 안에는 —그곳이 천하대라고 할지라도— 시험형 인간이 숨 쉴 만한 틈새공간이 존재하였다. 그 덕분에 이들은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아비투스)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제보자들은 졸업하고 취직을 하였지만 직장생활에 몰입하지 못하고, 곧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하였다. 대학원은 입학시험이라는 진입장벽이 있었지만, ‘시험’에만큼은 강한 이들에게 이는 그리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최준호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가기로 결심하고 퇴사하였다. 시험까지 6개월 정도 남아 있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감이 있었다. 무엇보다 중고등학교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시험공부’에는 자신이 있었다. 유슬기도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상담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가기로 결정했다. 대학원 입시 준비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은 그에게 비록 생소했지만, 그에게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정지윤은 약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장래방향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전문적 일”을 하기 위해 의사가 되기로 하였다. 의대 입학을 위해 수능시험을 다시 보기로 하였다.

교과서 일단 하나씩 사구요. 문제집을 두 권씩 사구요. 그거 보고 수능 봤거든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 항상 고등학교 생활의 연장선상이라 비슷했어요. 일종의 스킬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 고등학교 때라던가 이런 것들은 물론 대학에서의 공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 안에서 알팍한 것만 몇 번을 반복해서 보는 거잖아요. [...]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어떤 거를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공부는 그런 것들의 연장선인 거 같아요. (정지윤)

다시 하는 수능공부는 역시 재미있었다. 정지윤에게 “알파한 것만 몇 번 반복해서” 보고,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공부에는 너무 익숙한 것이었다. 이런 공부에는 도가 텃기에 오랫동안 같고 닮아온 공부의 “스킬”은 큰 힘을 발휘하였다. 6년의 의대공부 역시 중고등학교 때 공부의 연장선상이었다. 그에게 무슨 공부든 “공부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하였다.

이처럼 부활한 ‘시험형 인간’은 대학원에서도 빛을 발휘했다. 예컨대 이지혜는 대학원에서도 ‘시험형 인간’으로 살았다. 자신이 대학원을 온 것이 학자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력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기에 졸업을 위해 “꼭 해야 하는 만큼만” 효율적으로 공부했다. 대학원도 굳이 ‘깊이 파고드는 공부’를 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항상 의식적으로도 나는 이거 하지못해 한다. 나는 이거 지금은 시험 봐야 되니까 하지만 끝나면 다시는 안 볼꺼다. 이런 식으로 넘기고 넘기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 이제 석사니까 깊이는 더 깊어졌을 거 아니에요? 재무다보니까 수학 통계경제 별별게 다 나와요. [...] 저는 그냥 내가 이거 하는데 필요한 것만 아는 애한테 가요. 가서 그것만 물어보고 찾을 수 있는 것만 찾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정말 넘겨요. 근데 이렇게 해서 넘기는데 별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결론을 내리는 게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공부에 대해서는. (이지혜)

사람들은 흔히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보자들은 대학원에서 학위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전문화된 지식을 ‘공부’하는 데 치중하였다. 연구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지식을 생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와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연구에는 정해진 답이 없었다. 그리고 연구에서는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시험형 인간의 아비투스와 연구의 세계 사이에는 쉽게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시험형 인간의 아비투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세계와 계속 만나는 세계가 갈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보자들은 자신이 천하대 출신인 점과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학원에서의 회귀를 결심하였고, 입학시험을 무난히 통과하여 대학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 경력전환의 발판을 만들고 심리적 안정감을 누렸다. 대학 입시를 위해 탄생한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인생의 재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3. 사춘기 회피 증후군 : “또 다른 뭔가 업그레이드”

제보자들은 “일단 천하대이기 때문에” 전공을 불문하고 천하대에 입학한 후, 일단 공부보다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선택형 문제에 익숙한 이들에게 정답이 없는 인생 설계는 어색함 자체였다. 정답이 없는 서술식 문제에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는 답을 쓴다는 것은 이들이 이전에 결코 해보지 않았던 모험이었다.

제보자들은 교수에게 진로 상담과 관련된 조언을 바랐다. 그러나 한 번도 교수와 상담을 한 적이 없거나 상담을 받아도 학문세계에 익숙한 교수들은 직업세계와 관련된 실질적인 진로 고민에 답을 주지 못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교수를 찾아가도 듣는 답변은 주로 교수 자신과 같이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

근데 교수님도 계속 밟아온 트랙이 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트랙에 관련 된 거만 얘기하지.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지. (대학원) 언제 어플라이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받아야 하고. [...] 그리고 뭐 공부 어떤 과목 어떤 거 들으면 좋고 어디로 가려면 학점관리는 잘해라, 영어공부 미리미리 해놔라. (최준호)

또한 천하대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이나 고시반 운영 등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제보자들은 진로 설계와 탐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혼자 짊어졌다. 유슬기는 이를 “천하대생은 독고다이인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선생님과 부모님의 지원 속에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행했던 이들에게 매우 낯선 것이었다. 이런 낯섦 가운데 이들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을 찾았다. 바로 진로 선택지를 5지 택1형으로 구성한 뒤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진로를 하나씩 소거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학문 세계로의 진입이라는 선택지를 지운 뒤 남아있는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였다.

이지혜와 정혜리는 이러한 진로결정과정에서 고시라는 선택지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고시와 관련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시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 가운데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은 고시를 ‘한번 해 보았다.’ 그러나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자 이들은 이내 고시라는 선택지도 지웠다. 자신과 진로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4, 5개의 선택안을 시도하며 남아있는 선택지로 이끌려가는 과정은 대학생활 내내 계속되었다.

제보자들 중 일부는 인턴이나 어학연수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슬기는 다양한 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주전공인 독문학뿐만 아니라 취업을 염두에 두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였다. 최준호는 경영학, 법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인턴과 병역특례 경험을 쌓아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어느 하나도 이들에게 뚜렷한 길을 제시하거나 확신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이들은 장기적인 진로설계 없이 졸업을 앞두게 되었다.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취업뿐이었다. 이러한 사이에 제보자들은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짧은 준비를 통해 나름 취업에 성공하였다.

근데 꼭 내가 이 길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커리어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고. 우선은 이 일을 한번 해 보고 회사 생활이 어떤지 보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유슬기)

제보자들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취업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진입과 정착이 아닌 오히려 ‘회사 생활이란 어떠한지’ 경험하거나 ‘큰 조직은 어떠한지’ 탐색하는 차원에서의 임시적 취업이었고, 그런 점에서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남아있었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직장을 자신의 평생직장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그곳에서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도 않았다. 이들은 “일단” 취업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맞닥뜨릴 어려움은 그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이 이들에게 심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만일의 경우 얼마든지 그만두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자신과 진로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계속 회피한 결과,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장으로 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순간에 이들이 붙드는 것은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 설계가 아니라 “일단” 취업하고 보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한 직장생활이 1, 2년차로 접어들자, 제보자들은 무엇을 위해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 점점 희의를 느꼈다. 연차가 오르면 월급과 직위도 오르게 되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들은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계속 되물었고, 승진이나 월급 인상을 생각해봐도, “그래서 뭐?” 라는 질문밖에는 되돌아오는 것이 없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회피하고 대학 때도 유예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비로소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고민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실존적 질문으로 심화되지는 않았다.

최준호는 엔지니어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함께 일하던 선배가 30~40대에 퇴직을 맞이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서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가 추구하는 ‘자격증’은 천하대 출신이라는 사실에 걸맞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높은 소득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자격으로의 업그레이드 역시 천하대라는 배타적 지위 위에 구축된 것이어야 했다.

그걸 (천하대 △△과 졸업)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지. 그걸 버리지 않고 또 다른 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측면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지. (최준호)

고시제도가 지닌 위험을 피하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전문대학원 졸업을 통한 변호사 자격증, 치과의사 면허증, 의사 면허증 취득이었다. 세 가지 직업은 일의 성격과 특성이 상당히 다르지만, 최준호는 3가지 선택지를 다 같이 고민하다가, 자신의 나이와 개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가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자신과 잘

맞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적성보다 “치대 쪽이 더 메리트가 있겠다”는 직업의 전망성을 고려해 선택하였다. 이지혜도 다니던 회사에 불만이 생기고, 자신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서 내가 바라는 거는 굳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어도 되는데. 적당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성취하고, 그 성취에 대한 대가를 페어(fair)하게 어느 정도 페어하게 보상을 받고. (이지혜)

행복을 추구했던 그는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일한 만큼의 공정한 보상과 많은 여가를 꿈꿨다. 그에게 직업은 “굳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어도” 되었다. 경력 전환 탐색하면서, ‘나’는 다시 배제되었다. ‘나’의 내면의 소리를 배제하고 살아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삶이란 그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 더 나은 대접과 인정을 받는 곳으로의 이동이 중요했다. 이지혜는 위의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 분야는 금융업이라고 결정짓고 금융업종으로 이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이지혜는 사표를 쓰고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재무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러 대학원에 왔다.

아무리 내가 경영학과를 나왔어도 금융으로 바로 가는 것은 제조업 출신으로서 좀 내가 봐도 스토리가 안 맞거든. 그래서 인제 아 스토리(story)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재무 쪽으로 석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지혜)

사표를 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이들은 ‘한 번 경험해보는’ 차원에서 취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그만둘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결국은 내가 여기에 2, 3년 있으면은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 이제 갈 수 밖에 없구나. 나에게 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는 삶이 되겠구나 여기 있으면. 지금 늦었지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나이는 지금 이 시점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시간이 없더라구. (최준호)

최준호는 현재 직장에 2, 3년 더 있으면 그대로 안주하게 될 것 같았다. 정체된 자신과 직면하는 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은 산다는 것은 그에게 공포스러운 일이었다. “늦었지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나이” 31살에 최준호는 사표를 내었다. 유슬기 역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28살 이 시기가 “마지노선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심을 좀 세게 하고 사표를 냈다.” 이들은 보다 나은 직업으로의 경력전환과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원을 선택하였다.

백승민은 중등교사를 그만 둔 후,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다가 곧 모든 활동을 접고 천하대 대학원을 선택하였다. 백승민의 경우 특정한 자격증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지만, 천하대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그에게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적 선택이었다.

문이 여러 개인데, 그 중 하난데 강력한 문을 선택한 거죠. (강력한 문이라면?)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것. 제도적으로. 천하대는 그렇죠. 어디 가서 손해는 안보죠. 안정감이 있죠. 단순함. 생각하지 않아도 되요(웃음). 천하대이기 때문이죠. 천하대가 아닌 곳들에서는 특히요 정말 지겹도록 밥벌이를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암튼 그래도 여기는 정신적으로 안락하잖아요. [...] (천하대 대학원 다닌다고) 뭐가 보장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랄까 되게 안정적인 선택인 거 같아요. 이 선택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도박같은 선택들도. 연극배우나 뮤지컬배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하지 않는 거죠. (백승민)

이들은 대학생활에서도 자신과 인생 목표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을 회피하며 '일단' 취직을 하였고, 직장생활에서 회의를 느끼며 다시 한 번 사춘기적 질문에 부딪쳤지만 곧 천하대생에게 걸맞은 삶의 '업그레이드'에 매진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진로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없는 진로 선택을 계속 해나갔다.

VI. 논의

이 연구는 입시경쟁체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체화된 아비투스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러한 아비투스가 이후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천하대 졸업생들의 대학 전공 선택, 대학 재학 시절, 취업, 직장생활, 경력 전환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경쟁체제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제보자들에게 형성된 아비투스의 성격은 시험형 인간으로 나타났다.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공부와 자신의 분리, 시험을 통한 권력 추구, 전략적인 사춘기 회피로 나타났다. 이들 요소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경쟁에 몰입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연구결과는 순수 사유를 즐기는 학구적 아비투스(Bourdieu, 2001)나, 학습과 지식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실용적 아비투스(김천기, 김현수, 김혜영, 2008)와는 다른 시험형 인간이라는 독특한 아비투스가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가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동,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동과 같은 생애의 큰 전환과정을 거치면서도 변하지 않는 강한 지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결과는 학습에 의해 아비투스(abitus)가 변화될 수 있다는 Biest et al.(2011)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학습 아비투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Bloomer and Hodkinson(2000)의 논의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Biesta et al.(2011)의 경우 학습이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다소 낭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Bloomer and Hodkinson(2000)의 경우 학문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개인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쳐 실용적 아비투스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은 개인 차원의 변화에 주목하고, 아비투스가 특정한 구조 안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측면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는 수년에 걸쳐 입시경쟁체제라는 교육시스템 안에서 형성된 것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는 시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보상받는 생애 경로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도록 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험을 통해 천하대에 입학함으로써 일류대생이라는 안정된 지위를 누리며, 시험도 없고 일등이었던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직장 생활에는 회의를 느끼고, 시험형 인간으로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진로를 찾아 경력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는 중등학교 시기 학업우수자들이었던 대학생들이 진로 결정시 자신의 내적 특성(적성, 성격, 흥미, 가치관)과 진로의 일치성, 자신에 대한 자신감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는 선행연구(손진희, 2010a; 손진희, 2010b)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대학생들이 진로 결정시 고려한다고 자기보고한 요인 외에, 이들이 중등학교 시절 형성한 무의식적인 습관 및 성향, 즉 아비투스가 특정한 진로를 추동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진로 결정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가 이들의 교육생애에 양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는 흔히 입시경쟁체제의 산물로, 교육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일종의 일탈적 학습 문화이다(이영호, 2002). 그러나 이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는 자신과 잘 맞지 않는 대학 전공의 졸업장도 무사히 받을 수 있게 해 주었고, 전문자격증 취득이나 안정적 경력 전환을 위한 대학원 입시에서도 성공하게 해주었다. 또한, 수능능력시험을 다시 보고 의대에 입학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주었다. 반면,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가 학문의 세계로의 진입, 다시 말해 “학구적 세계로의 궁극적인 진입”(Bourdieu, 2001)을 지속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제보자들은 대학에서, 심지어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중등학교 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부하고, 자신은 ‘공부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문과 자신을 계속 분리시켜 나갔다.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는 자신에게 익숙한 시험과 학교라는 교육시스템으로의 회귀를 추동하는 동시에 학문과 연구에 몰입하는 삶과는 계속 멀어지게 하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우리 사회의 인재 선발 방식이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를 유지,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보자들이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선택한 진로는 주로 대학원 입학이었다. 자격증 시험, 입학시험은 시험형 인간의 장점이 가장 잘 부각되고, 시험

결과를 통해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는 선발장치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90:10의 사회로 재편되면서 전문 자격증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고, 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 입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때 대학원 입시는 중고등학교 때 입시와 매우 유사하다.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는 버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된다.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가 지속되는 것은 관성의 힘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한 선발과 보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지위 배분 방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입시경쟁에 몰두해온 학생들은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아비투스가 자신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에 대해 성찰해봄으로써 이후 진로를 보다 성숙하게 결정해나갈 수 있다. 대학은 학생들이 입시경쟁체제에서 익숙해진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를 객관화시켜 보고, 이것이 갖는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학생들이 재학시절 다양한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의 여러 선발 장치들이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창의적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재 선발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제보자 전원에게 면담이 한 차례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2차 면담의 경우 연구제보자 4명에게만 실시되어 심층적인 자료 확보 및 해석에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둘째, 표집의 한계로서 최종면접대상인 표집의 수가 7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른 단과대학 출신 천하대 졸업생들에게도 이 연구의 결과 나타난 시험형 인간의 아비투스의 구성요소와 재생산 방식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하고 이후 경력 전환을 경험한 졸업생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다른 진로를 선택한 졸업생들의 아비투스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와서 학문 세계에 흥미를 느끼고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한 경우, 전공공부를 하면서 자신에게 익숙했던 아비투스를 적극적으로 변형(transformation)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의 지속과 변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제보자들과는 다른 진로 결정을 한 천하대 졸업생들과의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천하대생'이라는 정체성이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를 유지, 재생산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의 재생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하대를 제외한 다른 상위권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기남, 임수원, 이정래(2008).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진로 결정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한국스포츠헌학**, 21(2), 327-342.
- 김민배, 문승태(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7(1), 92-105
- 김상봉(2004). **학벌사회: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파주: 한길사.
- 김성열, 윤경희, 제경숙, 손홍숙(1997). 마산과 창원지역 중학교에서의 고교입시 준비교육의 양상. **교육이론과 실천**, 7(2), 5-26.
- 김신일(2010). **교육사회학**. 파주: 교육과학사.
- 김천기(2007). 부르디외의 장·아비투스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난점 - 학교와 교사의 성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7(3), 79-99.
- 김천기, 김현수, 김혜영 (2008). 상업계고등학생의 아비투스에 따른 학생생활 방식. **교육종합연구**, 6(2), 1-25.
- 남경민, 유성경, 하정, 강혜원, 곽형선(2010). 학업우수 남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1(2), 775-793.
- 백병부(2008). 교사의 아비투스에 따른 교육과정 실행 방식의 차이 : 중학교 국어과 교사에 대한 사례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8(3), 61-86.
- 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2008).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4(1), 319-348.
- 손진희(2010a).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 요인 탐색: 청소년기 학업우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35-457.
- 손진희(2010b). 청소년기 학업우수 남학생의 대학 재학 시 진로결정 영향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8(2), 187-204.
- 오정란(2008). 비평준화지역에서 고등학교 진학경쟁에 대한 연구: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4(2), 175-194.
- 오현석 외, (2007). 강요된 학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1), 131-168.
- 유현옥(2003). 교육개혁의 대안적 패러다임과 여성주의 교육론. **아시아교육연구**, 4(2), 275-292.
- 이두휴, 고희일(2003). 대학서열체계의 공고화와 지역간 불균등발전. **교육사회학연구**, 13(1), 191-214.
- 이민경(2008). 대학생들의 교육경험 담론 분석: 입시교육과 진로 경험의 의미화를 중심으로. **교**

육문제연구, 31, 79-102.

- 이영호(2002).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의 청소년 학습문화. **교육사회학연구**, 12(1), 135-171.
- 이혜영(1995). 학력주의와 청소년의 삶. **한국청소년연구**, 20, 30-45.
- 임언, 노일경, 정혜령(2010). 청년 여성 취업자의 직무불일치 지속 여부와 임금변화 및 직장이동과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29(2), 225-243.
- 임은미(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하정(2007).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고용정보원(2010). **2008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홍성민(2004). **피에르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이론과 현실의 비교정치학**. 파주: 살림.
- 황매향, 선혜연, 정애경, 김동진, 김영빈(2009). 성적 하락을 경험한 학업우수 학생들의 학업실패 과정과 반응. **아시아교육연구**, 10(3), 191-212.
- Biesta, G. et al. (2011). *Improving learning through the lifecourse: Learning lives*. New York: Routledge.
- Bloomer, M. & Hodkinson, P.(2000). Learning Careers: continuity and change in young people's dispositions to learning.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6(5), 583-597.
- Bourdieu, P. & Wacquant, Loic J.D.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r Press.
- Bourdieu, P(1995). **자본주의의 아비투스[Algérie 60]**. (최종철 역). 서울: 동문선. (원전은 1977년에 출판)
- Bourdieu, P.(2000). Making the economic habitus : Algerian workers revisited. *Ethnography* 1(1). 17-41.
- Bourdieu, P(2001). **파스칼적 명상[Meditations Pascalienmes]**. (김웅권 역). 서울: 동문선.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Glaser, B. & Strauss, A.(1967). *The discovery of gourdnded theory*. Chicago: Aldine.

- * 논문접수 2011년 11월 7일 / 1차 심사 2011년 12월 13일 / 2차 심사 2012년 3월 5일 / 게재승인 2012년 3월 12일

- * 최선주: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성인학습이론, 학습생애경로, 교육시장 등이다.
* E-mail: tjswnl@snu.ac.kr

- * 한승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의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학습사회, 평생학습체제와 비판적 성인교육 등이다.
* E-mail: learn@snu.ac.kr

- * 이병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다.
* E-mail: bhcorpceo@naver.com

- * 이정희: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다.
* E-mail: lilivaly0330@hanmail.net

- * 장성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평생교육연구센터에서 보조연구원으로 활동중이다.
* E-mail: z7004@snu.ac.kr

Abstract

To Live a Exam-Oriented Life: Life Driven by the Habitus formed in System of Entrance Exam Competition

Choi, Seon-Joo*
Han, Soong-Hee**
Lee, Byung-Hun***
Lee, Jeong-Hee***
Jang, Seong-Ye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am-oriented disposition originated from college entrance competition and its effects on higher education, career, and career switch. The study is based on the interviews of seven alumine who graduated from a top university in Korea; the interview has been recorded and transcribed for extracting key subjects. Throughout the research, 'exam-oriented habitus', which consists of isolating self from study, pursuing power through scoring high on school tests, and ignoring puberty intentionally, has been found. Yet, the habitus, 'exam-oriented life', did not disappear even after the graduation from the secondary school; it had been reinforced while interviewees were attending university. This time, interviewees isolated 'themselves' from 'academic work' and self-exploration was postponed again. After their successful entrance into the field of jobs, however, the routine of simple works could not satisfy them. The habitus led them to quit their jobs and to return to graduate schools especially where they can continuously isolate their self from academic work. In the process of returning to graduate school, self exploration did not take place. This research revealed that the exam-oriented habitus' which had been shaped during the secondary school did not fade away, but led to the career path which is focused on security which can be attained through test scores, and the habitus is closely related to the Korean societal system where exam is used for social selection.

Key words : system of entrance exam competition, habitus, examination-oriented person, career decision, top student

*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